

학력 향상·적성 개발... 광양 교육환경개선 71억 투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맞춤형 교육 강화 방침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진로 체험·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광양시가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1억원을 들여 '명품 교육도시' 만들기 나선다. 시가 올해 편성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71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4000만원 증가했다.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87개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과 창의 융합 인재 육성, 특기 적성 개발, 인성 함양, 글로벌 인재 육성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광양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생 수요와 교사 공급이 부족한 학교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학생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 측은 기대했다. 시는 자유학기제를 기반으로 한 '진로 진학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광양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에 7000만원을 투입해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초·중·고 학교마다 진로 체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 5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달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 광양센터 개소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상담과 진로설계, 직업교육 등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7월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광양시 진로진학 상담의 날'을 운영해 일대일 입시전략 상담과 학습 상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대입 경쟁력을

강화한다. 광양시는 '누구나 평등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학교 보조금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남교육청이 지원하는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비 지원 차액을 학교 보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전남도교육청의 수학여행비 2023년과 2024년의 지원 차액인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6만5000원, 고등학교 8만원 등이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급단가를 인상해 1인당 31만4000원을 지원한다.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도 학년과 관계없이 교복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지난해 1인당 10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축하금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노렸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백운장학사업은 올해 규모를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4500만원 늘어난 3억5000만원이다. 백운장학회는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광양시 출연금으로 238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1년 12월 설립됐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4154명에게 12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다자녀 장학금과 저소득 우수 학생에게 지원금을 신설해 운영한다. 다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인원을 확대해 3자녀 이상 다자녀 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를 담았다.

한편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2025년 개교)와 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2026년) 등 학교 신설을 제때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지구에는 총 24학급(480명) 규모 광양와우초등학교가 신설되며 2일 개교한다. 시는 인근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 확보 등 안전 시설을 설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내년에는 6학급(120명) 규모 한국창의예술중학교 문을 연다. 앞으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와 통합 운영하면서 중·고 연계 교육을 통한 전남의 유일한 공립 명문 예술학교로 성장할 목표를 지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일념으로 맞춤형 교육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광양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브랜드 고흥' 정보 신고 전국을 달린다

군 랩핑버스 이달부터 시범 운행 서울·경상도권 이동 실시간 홍보

고흥군이 지역의 중점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군정 홍보 랩핑버스'를 운행한다. 차량 랩핑광고는 실사출력한 디자인이나 내용을 교통수단에 부착해 홍보하는 전차이다. 일상에서 쉽게 노출돼 대중성이 높아 홍보에 자주 활용된다. 고흥군은 기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 고정된 장소에서 주로 이뤄졌던 홍보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군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버스 랩핑 광고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군은 군정홍보를 위한 랩핑광고 차량 2대를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해 서울·경상도권 노선을 이동하며 실시간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속버스를 활용한 군정홍보



고흥군이 고흥의 중점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군정 홍보 랩핑버스'를 운행한다. 사진은 고흥군정 홍보 랩핑버스. <고흥군 제공>

는 '달리는 홍보매체'로 전국을 누비며 고흥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며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흥에 관심을 갖고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곡성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오늘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소농·면적 직불금 대상 농지 확대

곡성군이 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가 대폭 확대돼 2017년과 2019년 사이 직불금을 못 받았던 농지도 올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신청자는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소농 직불금은 연속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종사 등 7가지 기준이 충족될 경우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

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 단가가 적용된 금액으로 받는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으니, 신청 농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 농지요건 개선으로 신규 농가가 많이 유입됐다"며 "철저하게 검토해 대상 농가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광양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수학여행 인당 1만원... MICE 20인 이상 1박·2박따라 차등

광양시가 개별·단체 관광객, 수학여행단, MICE 등 관광객 유치여행사에 지원하는 상반기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확정했다. 광양시는 소규모 개별여행 트렌드에 맞춰 최소 인원 기준을 없애고, 충족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원기준을 변경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MICE는 20인 이상 최소인원 기준이 적용된다. 인센티브는 개별·단체 관광객, MICE 등에는 1박, 2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수학여행은 인당 1만 원이 지원된다. 숙박은 최대 2박까지만 지원되며, 관내 지출총액이 인센티브 신청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또 관내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와 인근 대형박람회 찾은 방문객을 관광객으로 유치한 경우에는 인당 3000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에는 인당 2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여행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서,

여행일정표 등을 여행개시일 하루 전까지 제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여행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및 방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기간(3월10일-19일)은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공관을 참고하면 된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올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빠르게 변화되는 여행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인근 지자체 대형박람회를 찾는 여행객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히 살아나는 여행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광양 여행 상품이 많이 발굴돼 활발한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센티브가 장기간 시름에 빠진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내버스, 화장동에 공영차고지 개소



지난 27일 여수시내버스 화장동 공영차고지에서 차고지 개소식이 열렸다. <여수시 제공>

5개 노선 44대 차고지 확보

운수종사자 휴식 공간 등 구성

여수시가 신월동에 이어 화장동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개소했다.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화장동을 기종점으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5개 노선 44대의 차고지와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지난해 무선지구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건너편에 총면적

4770㎡규모로 국비 3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13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버스주차 26대, 승용차주차 7대, 장애인 주차 1대를 포함한 34면의 주차면을 갖추고 간이 정비시설 1개소를 설치했다. 또 버스 운송업체의 업무처리 및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사무실, 식당, 주방,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도 갖췄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 조성으로 고인돌공원 앞 시내버스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순천시, 4년간 최대 2000만원

순천시가 올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모집 기간은 10일까지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고용기업에 4년간 최대 2000만원(청년 1500만원, 기업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순천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과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만 18~39세 이하 1~4년 차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64명(1년차 14명, 2년차 20명, 3년차 15명, 4년차 15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연도를 기준으로 ▲1년차 5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 ▲2년차 45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 ▲3년차 550만원(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 ▲4년차 청년 500만원이 지원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기업평가서 및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추 순천시청 청년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로 문의 또는 순천시청 누리집 고사·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향림실버빌, 노인 복지 '전국 최우수'



박창일 원장 등 순천향림실버빌 임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A등급)에 선정된 것을 자축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향림실버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하는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총점(98.35) 전국 최우수 기관(A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대상은 전국 4423개소였으며,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급여제 공정 ▲환경 및 안전 ▲기관운영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제공결과 영역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모든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고,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전년도에 지급 결정된 공단부담금의 1~2% 이내 가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창일 순천향림실버빌 원장은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가에서 지역 내 최고점수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전국의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로서 최고의 대우로 어르신들을 섬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작물환경 등 7개 분야 34건

곡성군이 7개 분야 34건의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새롭게 개발된 농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곡성군은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 방침에 따

라 지도도기화·인력육성·농촌문화·농기계·작물환경·과수특작·채소화훼 등 7개 분야 총 34건 대상자를 심의·선정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업들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